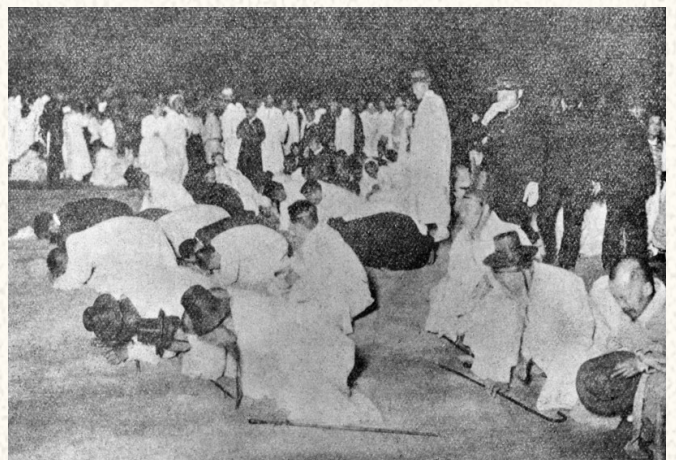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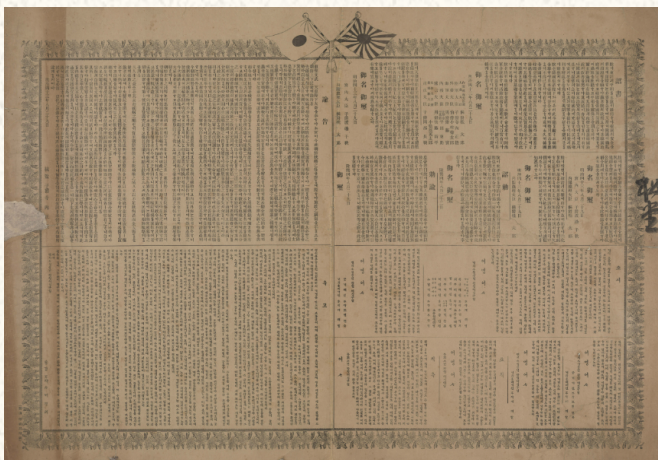


8월의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 경술국치를 당하자 목숨을 걸고 항거하다, 자결순국 -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장 투쟁을 전개하거나 계몽운동을 전개하거나 자결을 택하는 등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같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독립을 쟁취하려 한 것이다. 일제의 침략이 왜 부당한지, 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지 본인의 목숨을 던짐으로써 증명하는 투쟁행위다. 그래서 순국이라 일컫는다.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유교 문화의 기본 윤리였다. 이러한 자결투쟁은 일제에 경종을 울렸고, 국민에게는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민족적 각성을 촉구했기 때문에 이는 독립운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았다.



경술국치 공고문(1910)과 경술국치 발표 직후 통곡하는 국민들

홍범식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가장 먼저 자결을 결행하였다. 홍범식은 1871년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서 태어났다. 1888년 진사시에 급제 후 내부 주사, 헤민원 참서관을 거쳐 1907년 태인 군수에 임명되었다. 그가 태인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군민들은 『황성신문』에 그의 선정을 칭송하는 광고를 자발적으로 게시할 정도였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침략에 비분강개하였다. 1910년 망국 직전에는 이미 자결 순국을 결심하고, 경술국치 이틀 전인 8월 27일에 유서를 작성하였다. 그는 가족에게 남기는 여러 통의 유서를 쓰고 객사 벽에도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글을 남긴 뒤, 경술국치 당일인 29일 밤, 관아 뒤편 조종산 자락 소나무에 목을 매 자결 순국하였다. 금산군민들은 홍범식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홍범식 순절지와 순절비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산 46-1)



복원된 홍범식의 집 (괴산읍 동부리 450-1)

홍범식의 생가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5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이 곳에서 나도 자랐으며 그의 가정을 꾸리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이자 역사소설 임궽정의 저자로 유명한 벽초 홍명희 또한 이 곳에서 태어났다.



금산 군수 시절 홍범식

동부리 홍범식 집은 1919년 3.1운동 당시 홍명희가 지역주민들과 괴산 만세운동을 논의한 장소라고도 전해진다. 173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옥은 조선후기 중부지방 양반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고택인 동시에 3.1운동 유적이며, 문학유산이자 항일지사의 고택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홍범식 제월리 집 항공사진



홍명희

홍씨 일가의 묘막이었던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365번지의 고가도 홍범식의 집이다. 이 집은 아들 홍명희와 더 인연이 깊다. 1919년 동부리 집에서 만세운동을 기획한 홍명희는 옥고를 치른 뒤 동부리 집을 팔고 이 곳 제월리 집에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였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지금은 사랑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홍범식 제월리 집

『매천야록』의 저자로 유명한 황현도 자결 순국하였다. 황현은 1855년 12월 11일 전라도 광양현 봉강면에서 출생하였다. 34세로 성균관 생원이 되었으나 부정부패한 과거장의 폐해를 직접 목격하고 낙향한 후 부터는 관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매천 황현



매천 황현 생가 전경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758)

1886년 구례군 간전면 만수동으로 이사한 뒤 이곳에서 16여 년 동안 살면서 황현은 많은 시와 『매천야록』 등을 저술하는데 몰두하였다. 『매천야록』과 『오하기문』은 그가 저술한 대표적인 역사서로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침탈되기까지 47년간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본인만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사적지 상세보기



황현 은거지 터 (복원)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산67)



매천야록
(국가등록문화재)

“나는 죽어야 하는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선비를 길러온 지 500년이 되었는데, 나라가 망한 날을 당해 한 사람도
국난에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글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 버린다면 참으로 통쾌함을 깨달을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황현의 순절장소인 대월헌과 순국비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 672)

황현은 1902년 구례군 광의면 월곡리로 다시 이주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직후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등 관리들이 잇달아 자결하자 五哀詩를 지어 이들을 추모하였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국권 침탈 소식을 들은 황현은 비통해하다가 “인간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어렵구나[難作人間識字人]”라는 구절이 담긴 절명시와 유서를 남겼다. 9월 9일 소주에 아편을 타서 마신 다음날인 10일에 사망하였다. 이때 황현의 나이는 56세였다.

이들의 자결 순국은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독립운동에 나서게 하였다. 홍범식의 경우 그의 동생 홍용식과 아들 홍명희, 홍성희와 손자 홍기문까지 3대가 그의 순국에 영향을 받아 3.1운동과 신간회를 주도하는 등 민족운동에 나섰다. 가족 뿐만 아니라 김지섭, 송철, 조용하 등 홍범식의 자결순국에 영향을 받아 독립투쟁에 나섰다.

이처럼 자결순국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소극적 투쟁이 아니라 개인의 극적 희생을 통해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고 봉기와 투쟁을 유발한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서정화, 「유교 담론의 자장과 순국의 관계성」, 『국어문학』75, 국어문학회, 2020.

*박결순, 「一阮 洪範植의 자결순국과 그 遺訓」, 『軍史』79, 국방부, 2011.

*조재곤, 「이달의 독립운동가 - 황현」, 2005. 참조